

기독교의 孝思想과 韓國教會의 役割

강 춘근 목사(한국성결교회)

I. 들어가는 말

한국의 기독교는 복음이 전래된 이래 '孝' 사상을 무시하고 '부모공경'을 거부하는 종교처럼 오해를 받아왔다¹⁾. 기독교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효' 사상이 결여된 종교로 보는 편협한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그 동안 '효'는 공자 혹은 유교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으며, 기독교 경전인 성경만큼 효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교도 많지 않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효를 접근할 때 하나님은 공자가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이미 성경(모세오경, 십계명 등)을 통해 효(부모공경)를 계율로 명령하셨다. 또한 기독교의 본질이 효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하나님 섬김'과 '부모공경'을 함께 말하고 있다. 문제는 '인간 중심의 윤리'를 강조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 '신 중심의 윤리'를 강조하는 기독교의 효(부모공경) 사상이 규범적 측면에서는 일치하지만, 효에 대한 개념 설정이 동일하지 않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효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과 강조하는 목적과 성격 그리고 실천 방법에 대한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조선 500년의 시기에는 유교적 사상이 전 문화에 걸쳐 힘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 정신문화의 기틀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교적 가치관이 거의 절대적이었던 때에 기독교가 전래되었다. 당시 유교는 "효"를 가정과 사회윤리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었으며, 또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효의 연장으로 생각하였고, 효행 실천이 한국인의 생활문화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전래될 때에 선행문화였던 유교의 조상제사가 제 1계명과 제 2계명을 범하는 우상숭배로 단정하게 됨으로써 쌍방간의 배타와 배격으로 문화충돌을 야기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기독교와 유교 모두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효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효, 즉 제사문제로 인해 기독교는 당시 유교문화와 갈등을 갖게 된 것이다²⁾. 결과적으로 효의 표현 방법으로 조상제사를 중요한 위치로 차지하고 있었던 유교문화가 주도적이었던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기독교가 조상제사를 조상숭배 문제로 취급하게 되자, 한국의 기독교는 조상도 알아보지 못하는 불효의 종교로 여겨져 왔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짧은 선교의 역사에 비해 놀랄만한 성장을 가져왔고, 한국

1)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기독교가 무부무군(無父無君), 곧 임금도 부모도 없는 종교라고 오해를 받았는데, 그 발단은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전통적 가치인 유교적 의식 속에 과몰려 있던 사회에 천주교의 새로운 가치가 유입되었는데, 이때 조상제사와 관련한 조상숭배 문제로 인한 이해 유교문화와의 이해 차이에서 비롯되게 된다. 1791년 '진산사건'시 다산 정약용의 고종 사촌이며 한국인 최초로 천주교 신자로 세례를 받았던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된 윤지충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신주를 불사른 일에 대해 처형을 당한 것을 위시하여, 1800년의 신유사옥, 1839년의 기해사옥 등을 통하여 천주교인들이 수 백명의 순교를 당했기 때문이다.

2) 자세한 내용은 박봉배(1998) 교수의 "현대적 가치관의 갈등과 한국교회의 과제" pp. 324-331를 참조하시오.

사회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 다시 말해, 기독교 복음선교가 시작된 이래 기독교는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고, 낡은 사상과 전통을 깨우치며, 생활개선을 주도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고³⁾, 오늘날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인적·물적·영적·도덕적 자원들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오늘날 한국사회는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역기능과 함께 한국의 정신 문화를 상징하는 효 사상과 의식이 변질되거나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기와 더불어 반성을 하고 있다⁴⁾. 동시에 인류 정신 문화사에서 훌륭한 사상이며 전통적 문화유산인 '효' 사상과 가치를 실현해 가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즉,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정보화에 따른 사회적 변동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효 가치와 이념을 재조명하여 효를 강조하려는 사회적 관심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는 기독교의 효 사상의 풍부한 내용을 통해 효과적인 복음선교와 함께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으리라 본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사회가 필요로 할때 앞장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설득구조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를 선도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올바른 역할과 더불어 한국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당면 과제라 하겠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선교 2세기를 맞아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의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자랑할만 전통적 문화유산⁵⁾인 효가 유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경과 기독교 전통이 가르쳐왔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측면에서 기독교의 효 사상을 깊이 있게 고찰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선교 초기에 문제시 되었던 조상제사가 조상숭배로 취급했던 것에 대해 기독교 진리체계에 입각한 조상제사를 기독교적 해석과정을 통해 현대사회에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기독교 자체의 발전과 성장 성숙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효문화를 확산과 함께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인 효 사상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II 장에서는 공자의 효사상과 유교의 효관을 살펴볼 것이며, III 장에서는 우리나라 효사상의 특징과 효문화의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IV 장에서는 효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기독교 효사상의 성격과 조상제사의 기독교적 수용 여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V 장에서는 기독교의 효사상을 통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 기독교의 전래가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생활에 끼친 공적이 여러 방면으로 크다고 지적되는 예를 들어보면, 첫째, 미신의 타파로 정신적 해방의 큰 은덕이었다. 둘째, 성서번역과 보급을 통해 국어와 국문에 새로운 생명과 가치를 불어넣어 국어연구가 촉진되었다. 셋째는 전도의 방편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근대학술의 교과서, 근대 의학의 치료사업, 근대적 인쇄술의 수입, 신음약의 보급, 집회·오락·교제·연설·토론 등 공동생활의 양식을 가르침 받은 근대문화의 보급 내재, 축첩폐지와 여학교 설립 등으로 부녀의 사회적 위상을 정립하여 준 일이다. 다섯째로, 의례의 간소화로 관혼상제의 준행에 있어서 번문육례(繁文縟禮)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4) 2008년 8월 4일 통과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가족문화가 변화됨에 따라 노인을 부양하는 일이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적 효'를 '사회적 효'로 전환시킨 제도가 등장한 것이다.

5) 대전일보, 2007년 5월 1일자, 1973년 월간 디프롬에시 회장 임덕규씨가 영국을 방문했을때 아놀드 토인비를 만나 한국의 효상에 대해 설명했더니 토인비가 감탄을 하면서 "한국의 효는 인류문명에 이바지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였다. 그는 역사학자 토인비를 만나 나눈 대화를 통해 '한국의 효·경로사상은 우리나라의 영원한 수출품으로 토인비가 부러워한 정신문화'였다고 설명하였다.

II. 공자의 孝 思想과 儒敎의 孝觀

공자의 효사상⁶⁾은 동양의 유교문화권에서 절대적으로 계승되어 한국인의 사상과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여기서는 효사상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공자의 효사상과 유교 경전에 나타난 효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나중에 살펴볼 기독교의 효사상을 통해 효에 대한 유교와 기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공자의 孝 思想

공자(孔子: BC 551-478)는 유교의 원조로서 그 중심 사상을 인(仁)⁷⁾에다 두고, 윤리적 근본 사상을 효(孝)에 두고 있다(서일성, 2010; 29). 공자는 주대(周代)에 가족과 국가에 걸쳐 적용되는 윤리규범으로 자리잡은 효 관념을 더욱 계승·발전시켰다. 공자는 『논어(論語)』에서 "젊은이는 집에 들어가서는 효(孝)하고, 나가서는 제(悌)해야 한다"⁸⁾라고 하여, 부모에게 효순(孝順)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학업의 으뜸으로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 누구나 자식이라면 우선 집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여 자식이 된 도리를 다하고, 밖에 나와서는 모든 일을 신중히 고려해서 남에게 신용을 잃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널리 사랑하되 특히 어진 사람을 사귀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음은 학문을 익히라고 하였다.

여기에 공자의 중심사상인 '인'(仁)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공자는 정신적인 학문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올바르게 정당한 실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공자는 또 '효'가 우주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바른 길이며, 인간성과 도덕성이 실종된 인류사회를 구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인간성과 도덕성 교육이 효로 완성될 수 있다고 보았고, 효가 백 가지 바른 행동의 근본이며 교육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공자의 효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효를 강조한 내용들이 제자들에게 의해 직접 집필된 <논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신용준, 1989; 144-147).

첫째, 孝子(효자)는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받드는데 있다. "요즈음은 봉양함을 일러 효도라 하나, 그것은 개와 말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니 공경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그것과 다르랴"(爲政篇). 이는 부모에 대한 효는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酒肉(술고기)을 드린다고 해서 효도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되고,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봉양이어야 함을 뜻하고 있다.

둘째, 孝子(효자)는 부모에 대한 태도가 중요함을 뜻하고 있다. "얼굴 빛이 어려워니라. 일이 있을때 자제들이 수고를 다하고 술과 음식이 생기면 어버이에게 대접하는 이것만으로 어찌 효행이라 하리오"(爲政篇). 부모에 대한 태도에는 얼굴빛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괴롭더

6) 일반적으로 공자의 사상에 대해서는 통일된 견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공자는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저술한 책이 단 한권도 없다. 따라서 공자 학문을 연구하는 견해도 제각각이어서, 단순히 공자 학문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유학이라 볼 수도 없다. 또한 유학의 경향중에도 이론 연구에만 치우쳐 관념론으로 흘러가거나, 반면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향도 있고, 정치학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철학적 판단으로 취급하여 아예 학문에서 배격하려는 경향도 있다. 공자의 직접적인 사상을 엿 볼 수 있는 책은 그 제자들에게 의해 집필된 <논어>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책은 이 책을 바탕으로 파생된 연구 서적이거나 일종의 철학서적이다. 이 논어는 구전(口傳)과 문서로 보존된 공자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편찬된 이 책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공자의 정신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논어>는 여러 사람의 공동 기억을 기록한 것으로, 자신을 유생(儒生)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자에 대한 기억을 계승시키고 공자의 생활양식을 현재에도 살아 있는 전통으로 전수시켜주는 문서로서 수세기 동안 숭배해온 것이다.

7) 여기서 '인'(仁)이란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도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랑을 가장 순수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기를 낳아서 길러 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 다음이 형제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8) 『論語』學而篇, 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以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라도 항시 부모 앞에서는 부드러운 얼굴빛을 지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늘진 얼굴빛은 언제나 부모님의 걱정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孝子는 부모에 대한 예를 극진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버이 생전에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셨을 때는 예로써 장사를 지내고, 제사도 예로써 모셔야 한다"(爲政篇). 부모는 정으로 맺어진 혈연인만큼 예라는 형식에 연연히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를警戒하기 위하여 극진한 예를 잊지 않도록 일깨워 주는 말이다. 그러므로 상을 당해서는 진심으로 슬픔을 다하는 것으로 족할 따름이지, 구태여 정도를 넘어서까지 애써 형식을 차리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조상의 제사에는 공경과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한 것이다. (장재천, 2008; 233).

넷째, 孝子는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라는 뜻이다. "부모는 오직 병을 근심하느니라"(學而篇). 부모가 아들의 병을 걱정한다는 것은 지극한 사랑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식이 자기 자신의 병에 조심함은 그것이 간접적으로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행동이 된다. 직접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직접적 효도에 비해 이는 간접적 효도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孝子는 가풍을 계승하라는 뜻이다. "부친의 생존시는 그 뜻을 살리고, 부친이 세상을 떠나면 그 행적을 살피되, 3년간은 부친의 뜻을 고치지 않는다면 효자라 할 수 있다"(學而篇). 부모의 좋은 뜻과 행동은 그가 살았을 때나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고치지 말고 이를 계승하여 家道와 家風을 이어가는 것이 효자의 도리이거니와, 만일 다소라도 이를 개혁하고 개선할 가풍이 있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직후에 이를 없애거나 고치는 것은 효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지, 3년쯤 여유를 두는 것은 아들로서 부모에 대한 생존시의 애끓는 정이 아직 사라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여섯째, 孝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뜻이다. "부모의 잘못은 아는 듯 모르는 듯 여쭙어 가면서 그래서는 안될 뜻만을 보이며, 공경하는 마음에 틈이 나서는 안되며, 수고롭더라도 원망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군주의 잘못을 諫하는 신하는 군주가 듣지 않으면 신하의 직분을 그만두면 되는 것이나, 부모의 잘못을 간하는 자식이 부모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아들이라는 혈연을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혈연의 윤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를 섬기되 잘못이 있으면 이를 부드럽게 간 할 것이고, 부동위의 의사만을 보이며 끝까지 부모의 회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일곱째, 孝子는 부모의 나이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다. "부모의 나이는 알아두어야 한다. 한편 기쁘기도 하려니와 한편 두렵기도 하기 때문이다. (里仁篇). 부모의 나이가 많아지면 장수하시므로 기쁘거니와 많을수록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므로 두렵다는 것이니 이는 효자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논어에 기록된 공자의 효 사상은 敬愛를 기초로 하고 이것은 혈연의 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부부자자의 인간적 도리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자의 효 사상은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가지는 보은의 의무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구성체를 전제로 한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로써 쌍무호혜적 관계에서 설정된 윤리이자 인류의 삶의 질서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2. 유교(儒敎)의 효관(孝觀)에 나타난 효관

여기서는 한국인의 효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표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유교 경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교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전에서 효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중에서 효를 덕의 근본으로 역설한 책 『효경』⁹⁾이 가장 대표적이다. 『효경』¹⁰⁾에는 "신체의 모든 터럭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이를 감히 손상시키지 않

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입신행도하여 이름을 후세에 떨치는 것이 효도의 끝이다. 무릇 효란 사친(事親)에까지 미치고 입신에서 그친다"¹¹⁾라고 유교의 효 관념을 정리하였다

『효경』에서는 "효는 덕의 근본이다". "사람의 행실 중에는 효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효는 아버지를 섬기는데서 시작하여 임금을 섬기는 데로 나아가고 입신으로서 끝난다"고 하여 효의 본질과 중요성과 실천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은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으면서도 질서를 교란시키지 않을 것이로되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투지 않는다"¹²⁾.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선불리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은 선불리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¹³⁾라고 하여 효자의 사람됨을 설명하고 있다.

효경에 나오는 효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서경요, 2010; 193-198). 첫째, 생명을 아껴 보전하는 효도이다. 둘째, 공경하는 효도이다. 셋째, 간언하는 효도이다. 넷째, 양명하여 부모사랑을 하는 효도이다. 다섯째, 봉사하는 효도이다. 이같이 "살아계실 때에는 애경으로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는 애경으로 섬기면 생민의 근본이 극진하고 사생의 의리가 갖추어지니 효자가 부모 섬기는 일이 끝나는 것이다."¹⁴⁾라 한다. 이러한 『효경』은 단순히 부모의 사랑과 공경만이 아니라 인간의 목숨을 아끼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가 효의 생명론적 윤리의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유교의 효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에 베풀어 준 은공을 갚는다는 의미에서 살아서는 잘 봉양해 드리고 그들의 사후에는 애틋한 상을 치르는 일과 경건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백행의 근원으로 가정의 화목, 사회의 질서 그리고 국가의 부강과 천하의 안정까지 아우르는 대도(大道)로 까지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교에서 말하는 효는 생명을 보전하는 원천적 감정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효는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보은으로 표현되며, 효는 모든 도덕의 근간으로서 가정을 화목케 하고 사회와 국가를 안정시키며 세계와 우주까지 연결시키는 대도로 이해되는 것이다(서일성, 2010, 31). 이같이 볼때 효사상은 사랑과 공경으로써 내 부모를 섬기고, 더 나아가 인도(仁道)를 실천하여 인류애를 구현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 시조의 본질인 천을 섬기는 종교적 경지까지 이르러야 그 본질이 올바르게 구현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공자의 효사상과 유교의 효관을 정리하면, 첫째, 부모를 지성으로 섬기며 예로써 받들고 사후까지도 경모(敬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부모에 대한 의식의 봉양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의 뜻에 대한 봉양, 즉 양지(養志)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효를 통하여 장유의 서를 지키고 노인을 예로써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안에서는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나아가서는 군왕을 받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입신양명하여 가문과 부모의 이름을 빛내야 한다는 것이

9) '효'에 관한 유교의 전통적 관념은 비로소 한대(漢代)에 이르러 『효경(孝經)』으로 집약된다. 『孝經』의 취지는 『소학』이 서당에서 아동들에게 가르치는 초보적인 교재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그 내용은 효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매우 다양한 생활윤리를 포함하고 있으나 모두 효의 윤리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 효경에서는 효가 덕이나 교화의 근본으로 이해되었으며, 인간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기에 불효를 모든 죄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라고 설명된다.

10) 『孝經』에 나타난 효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종속의 영속이라는 생물적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문의 명예에 따른 가치문화적 측면이다. 그러나 『孝經』에서는 효를 처친, 제후, 사, 서인의 효 등으로 구분하여 秦漢 이후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와 계급질서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선진의 효개념에 수정을 가하였다.

11) 『孝經』開宗明愷章,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後世揚名 以顯父母 孝之終也

12) 『孝經』10장, 事親者居上不驕 爲下不亂, 在驍不爭.

13) 『孝經』天子章, 子曰, 愛親者, 不敢惡於人, 敬愛親者散漫於人

14) 『孝經』喪親章 生死愛敬, 死事哀戚, 生民之本, 盡乎, 死生之念, 備矣, 孝子之事親終야

다. 여섯째, 효는 인륜의 근본이며 천도로써 더 크고 기본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는, 효는 유교도덕의 근본이며 국가질서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정치적 생활의 원리라는 것이다. 여덟째는 효는 신분의 상하 귀천은 물론,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인 윤리적 가치라는 것이다. (장재천, 2008; 235-236)

III. 우리나라 孝思想의 特徵과 孝文化의 變化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전통문화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효사상이다. 그런데 이 효사상이 유교에서 나온 것이고, 유교라면 중국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 고 유문화라 할 수 있을까?¹⁵⁾에 대한 것을 확인하며, 오늘날에 와서 효사상이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효문화가 변하는 속에서 한국교회가 기독교 효사상을 복음선교 측면에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 우리 나라 효 사상의 特徵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효에 관한 문헌은 중국의 것과 공통되는 것이 많다. 특히 중요한 경전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구비문학 속에는 중국의 고사가 직접적으로 전해졌거나 변형된 것이 포함되어 있고, 설화의 口演者 자신이 중국의 고사인지는 아닌지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효행설화는 중국의 그것과 거의 같거나 비슷한 점이 발견된다. 중국의 『七十二孝의古事』 가운데는 郭巨가 어머니를 위하여 아이를 묻으려 한 일, 王洋이 겨울에 잉어를 구한 일, 孟從이 겨울에 죽순을 구한 일, 陸積이 옷 속에 굴을 품어다 어머니를 봉양한 일, 黃香이 부모의 이불을 따뜻하게 해 드린 일, 王裒가 어머니로 하여금 천둥, 번개에 놀라지 않도록 보호한 일, 丁蘭이 돌아가신 부모상을 나무로 조각하여 추모한 일, 朱秦가 호랑이를 감화시킨 일, 黃黔婁가 부모의 대변을 맞보면서 간병한 일, 董冰이 몸을 팔아 부모를 장례한 일, 王源이 천리길을 걸어 아버지를 찾아간 일 등은 한국의 설화와 매우 유사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관계가 깊을 것으로 보고 있다(지교헌, 1997; 40).

이상의 고찰을 통해 지교헌은 한국의 효사상에서 한국인의 효를 4 가지로 정리한다(지교헌, 41). 첫째, 부모의 은혜는 한없이 넓고 크다. 사람은 한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지만 부모의 은혜는 그 어떤 은혜보다도 넓고 커서 비교할 데가 없다. 대부분의 은혜가 후천적인 인간관계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베풀어지는 데 대하여 부모의 은혜는 생래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어서 인위적인 한계를 초월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갚을 수도 있지만, 부모의 은혜는 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정성껏 갚아드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둘째, 부모의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작은 선물을 받거나 음식을 대접 받아도 매우 고맙게 여기고 언젠가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갚고자 한다. 부모의 은혜는 자녀로서 마땅히 갚아야 한다는 지상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 지상명령은 본래적인 인간

15) 홍일식은 "21세의 효사상"에서 유교의 효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철저히 받아들여지고 실천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유교의 효 사상이 유입되기 이전에 효 사상이라고 이름해야 할 사상이 본래부터 있어왔다. 바로 원시종교적 샤머니즘에 뿌리를 둔 부모와 조상에 대한 숭배사상이다. 이 고유의 사상이 유교적인 옷을 입음으로써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승화되었다고는 할 수 있어도 한국인의 효 사상이 유교에서 나왔다고는 할 수 없다(1996; 159-160).

의 양심과 자녀로서의 도리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보은은 그 정당성의 근거를 초월한다.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명제는 지적, 논리적 능력의 조작에 의하여 성립되기 이전에 존재의 법칙에 의하여 본래적으로 성립된 것이다.

세째, 효성에는 하늘이 감응한다.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알고, 자녀의 즐거움과 기쁨을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알듯이, 자녀도 부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알고 부모의 즐거움과 기쁨을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안다. 그러므로 고통을 덜어드리고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서슴지 않게 되고 어떠한 고통도 감수하게 된다. 자녀의 효성에는 하늘(하나님)이나 부처님(미륵불)이나 또는 옥황상제 선녀 용왕 염라대왕 산신령 조상신 등이 감응하여 돕는다. 구비문학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모두 이에 속한다.

네째,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앙화를 받는다는 가치의식이 전해오고 있다. 즉 하늘은 결코 무심치 않아 모든 인간의 선행과 악행을 빠짐없이 알고 있어서 선행하는 자에게는 그 일을 도와 성취시켜 주는 동시에 때로는 많은 보상도 베풀어 주지만, 악행하는 자에게는 그 일을 방해하여 좌절시키거나 흉악한 앙화를 내린다는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부모를 하는 일인 동시에 자녀 자신을 위한 일이고, 자녀가 복을 받는 길이요. 수단이기도 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 부귀해지고 자녀가 번성하여 대대로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 홍일식은 우리나라의 효사상을 우리 민족의 신앙으로까지 표현하면서 한국의 효사상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홍일식, 1996; 182-184).

첫째, 효는 인간이란 존재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효사상은 자기 생명의 창조자인 조상을 신으로 받드는 우리 원시 종교에 뿌리를 박고 있다.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죽어서는 신이 된다는 사상. 사람이 곧 신일 수도 있다는 이 생각, 그것은 인간 위에 어떠한 권위도 용납하지 않는 지극한 인본주의가 아닐 수 없다. 국조 단군의 이념이 홍익인간이요 민족종교 동학이 인내천을 표방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이 정신은 미래 사회의 새로운 중심 가치로 떠오를 것이다. 기계 문명 속에서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극도의 인간 소외를 체험한 인류에게 앞으로 가장 절실한 과제는 인간 회복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효는 나를 남보다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닌 남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이타주의를 본질로 한다. 부모도 엄밀하게는 사실 나와 별개의 개체다. 그런데도 나보다 나 아닌 부모를 위한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부모에게 먼저 드러서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이 기뻐하는 마음,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부모에게 돌려서 부모가 누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그것은 이미 높은 차원에 가 있는 이타주의다. 산업화·도시화·개인화로만 질주해 가는 현대문명은 인간의 가슴속에 극도의 이기심만을 심어 놓았다. 이런 이기심으로 물든 사회에서 '효'라는 해독제가 필요하다.

세번째, 효는 인내를 중요시하고 필수로 한다는 것이다. 부모를 섬기고 받드는 과정은 곧 나의 충동과 감정을 억누르고 자제해 나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린 부모를 봉양하는 일은 오랜 시간 자신의 자유를 억누르고 오로지 부모님을 위해 살아야하는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효를 실천한다는 것은 인내심이 발휘되는 과정인 동시에 인내심이 함양되는 과정이다. 현대문명은 인간에게서 참을성을 빼앗아가 버렸다. 편리와 속도와 감각의 추구에 영합하여 쏟아져 나온 현대의 모든 정신적·물질적 산물은 인간을 극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존재로 변모시켜 놓았다. '신경질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하는 오늘의 광포한 세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치인 인내를 효사상은 내포하고 있다.

넷째, 효는 또한 절충주의를 필수로 한다. 부모를 모시는 자는 자신의 극단적인 입장만을 고집할 수 없다. 세대 간에 조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절충의 지혜를 발휘해야만 한다. 되도록 부모의 뜻에 따르면서도 맹종하지는 않는다. 부모의 부당함이 있을 때에는 체음이간(涕泣而諫), 즉 옷소매를 붙들고 눈물으로써 간하여 바른 길을 함께 찾아 나가는 법이다.

다섯째, 효는 평화를 추구한다. 위로 부모를 받들어 모시면서 아래로 자식에 이르기까지 가족 전체를 이끌고 화평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은 인간생활의 근본이다. 출발은 가족 구성원간의 화목이 되겠지만. 그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면 그것이 곧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연결된다.

이상과 같은 한국인의 효사상은 지극히 원초적인 신앙과 윤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우리의 윤리관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집단적 무의식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중심의 기본윤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2. 효 문화의 사회적 여건 변화

효에 관한 유교의 가르침은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나라의 가족중심적인 생활문화의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쳐 왔다(이상은, 이병도, 1976, 1995; 신용하, 2004). 유교는 형식주의적인 행동문화를 조성하였다고는 하지만, 한국인의 전통적인 효의식의 기틀을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효문화의 사회적 환경이 변화되면서 우리나라의 효에 대한 생각과 인식 그리고 태도가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¹⁶⁾. 또한 사회 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의 효사상과 현대의 효사상에는 시대적 차이만큼의 차이가 있고, 또 효를 실천할 때 농경사회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현대사회가 과거의 전통적인 효사상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효사상의 본질적 의미까지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효 사상과 현대적인 효사상을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통적인 효사상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양자택일의 문제를 갖고 있다(이은경, 2005). 과거에는 특히, 유교에는 소학이 유교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많이 사용되었다. 소학에는 구체적인 효의 실천 예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 예화들이 거의 대부분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던가, 부모의 생명을 여의게 하고 자신이 살던가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였다¹⁷⁾(이은경, 2005).

둘째, 전통적인 효는 현실과는 너무 판이한 내용들로 나타나 있다.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아프거나 너무 가난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현대의 대부분의 가정의 부모들이 아프지 않으며 경제적 여건이 자녀들까지도 돈을 벌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예화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이나 중상

16) 우리 사회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전통적 부모부양의 이념과 관행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이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적 소용돌이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충하는 움직임은 연령을 달리하는 세대들 사이의 가치관 사이에서 오는 것 같다. 연령층에 따른 어른에 대한 시각, 태도 및 행위가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다. 인류사회에서 세대가 바뀔에 따라 신세대는 생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신세대 사람들은 전통적인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새로운 사회환경에서 자라나면서 전통과 기존 가치와 다른 시각과 의식을 갖게 되어 현 사회의 질서를 배척하려는 성향이 있다. 구세대와 신세대간에는 유전학적, 사회학적인 유사성이 있어 생리적, 사회적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세대가 달라지고 사회환경이 변하지만 구세대의 전통 또는 타성은 쉽게 없어지지 않으면서 지속된다. 구세대는 전통을 고수하며 안정된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려는 사회적, 집단적 노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부양에 있어서도 세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질서의 지속과 변화와 연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17) 이러한 양자택일의 대표적인 예로 심청전이 있다. 심청전의 내용에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여 살리기 위해서 심청이 자신이 바다에 몸을 던져 아버지를 봉양하게 된다. 이처럼 아버지의 삶을 위해서 자녀가 죽는 식의 극단적인 예가 나타나고 있다.

층의 가정에는 구체적인 효의 실천 예화가 될 수 없으며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다.

세째, 전통적인 효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 엄격하며, 강압적이고 효를 조금만 지키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그 의무가 강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현대의 사회와는 다르며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에는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엄격한 종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에 알맞게 적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효 가치와 이념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사회적 변동으로 말미암아 전통적 가치와 이념을 실현해 나가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변동으로 말미암아 전통적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이 '수정'되고 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린 효 이념을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서 구현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이동, 주거형태의 변화, 통신기술의 발달, 직업 전선에서의 극심한 경쟁 등 일련의 사회환경적 변동에 따라 이제는 효의 표현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¹⁸⁾.

물론 현대사회에서 실행되는 효가 전통적 효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되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구조와 변화로 말미암은 효행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고영복, 1983; 한남재, 1997; 신용하, 2000; 성규탁, 2005).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효는 고령자와 노부모를 부양하는 역할을 뒷받침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존속할 것이라고 본다(박재간, 1989; 유승국, 1995; 최근덕, 1995; 송복, 1999; 신용하, 2004). 우리 사회는 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학교와 가정에서 그리고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¹⁹⁾.

이제 전통적인 효사상이 현대의 효사상과 다른 점이 많지만, 수정·보완되어 새롭게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IV. 基督教 孝思想과 祖上祭祀의 基督敎的 수용

1. 기독교 효 사상

여기서는 성경에 나타난 효사상과 기독교 효사상의 성격과 조사제사의 기독교적 수용여부에 대해 살펴봄으로 기독교 효사상의 실천 방안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성경에 나타난 효 사상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활의 표준이 되며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며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종교 경전에도 성경에 있는 '효'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성경이나 다른 경전이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며 종교는 '다 같다'라고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효에 대한 표현은 같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함축되

18) 성규탁은 새 시대의 부모 자녀간의 관계는 이런 변동에 수용하여 전통적 부모자녀관계를 수정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적어도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전통적인 관계와 차이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첫째,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위에서 아래로 명령만 내리는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식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여 한다. 둘째, 여성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셋째, 가족의 변화에 적응해서 효를 구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넷째는 가족적 차원의 효능 이웃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19) 최근에는 문화교육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지방정부기관들이 효의 이념과 관행을 고취, 장려하는 각종 행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효에 관한 사회적 노력 또는 사회공작이 계속되고 있다.

어 있는 효에 대한 성격과 강조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1) 구약에 나타난 효 사상(십계명)

구약성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효를 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구약성경에서는 '효'를 창조질서와 연관지어 말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²⁰⁾.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 아담과의 관계는 부자 관계를 근본원리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창조의 질서를 제시하면서 그 안에는 효사상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창세기 22장에 그려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에서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명령과 순종의 파노라마는 아름다운 효 실천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부모공경에 대하여 명령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자기 소유를 지키며 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신명기 21: 18-19절²¹⁾에서는 부모에게 절대 순종할 것을 요구하며, 레위기 19: 3절²²⁾은 부모를 경외할 것을 명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단어인 '경외'를 사용하고 있다. 창세기 50: 12-14절에서는 야곱의 아들이 부모의 유지를 잘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노인을 공경할 것(레 19:31), 불결한 행동이나 언사를 삼갈 것(속 13:3) 등이 강조된다.

잠언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잠언 30: 17절)고 기록되어 있다. 또 잠언 23: 24-25에서도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지혜를 중히 여겼던 현인들이 효의 지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구약성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효가 무엇이며, 그 효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효를 실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²³⁾.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즉, 효를 행하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반하는 행위인 불효를 행하면 징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 신약에 나타난 효 사상

신약성서의 신앙구조는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임

20) 출 20: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신약에서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공경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신약에서 사용된 티마오라는 단어는 신자가 하나님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 세속의 질서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21) 신 21:18-19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2) 레 19: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3) 성공적으로 효를 행했던 요셉과 사울은 하나같이 복을 받는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요셉은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다. 이스라엘 총리가 된 요셉은 거기서 또 자신의 가족들을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애굽으로 이주를 시킨다. 사울은 사무엘서의 후반부 기록에서는 좋지 않은 인물로 평가되지만 그것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후 2년이 지나서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나타난 성서의 보도를 통해서 사울은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었다. 지극한 효심을 가지고 효를 행했던 사울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여는 사람이라는 명예를 안게 된다. 반면에 효를 행하는데 실패한 인물들의 최후는 비참하다.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모든 형제들이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들만 저주를 받는다. 아버지를 향해 반역의 칼을 들었던 압살롬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게 된다. 잠언 30: 17절에는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을 알 수 있다. 즉 신약성서에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이 양자를 연결시키는 성령이 모두 일체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사상 속에는 부자관계라는 것이 기본적인 질서로 전제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하복종의 관계라기 보다 사랑안에서 하나된 관계라는 것을 더 강조한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가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효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예수의 효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예수 당시 유대문화에서도 부모공경과 가족사랑은 최상의 가치였지만, 예수는 인생에 있어 부모공경과 가족사랑보다 더 상위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도 사상이었다²⁴⁾. 다시 말해 복음서에 나오는 효 주제는 항상 제자도의 관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부양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르반'의 유전²⁵⁾을 악용하여 부모에게는 불효를 하나님에게는 제 계명을 폐지하여 신앙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준수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한 부모에 대한 효의 근본정신을 저버리고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도높게 질책한다²⁶⁾.

또 누가복음 2장 50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눅 2:50)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효 실천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는 말은 부모의 권위아래 자신을 복종시키신 것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와 세상에서의 부모에게 복종하는 아들로써 효를 교육하시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어머니의 뜻대로 효를 실천하였으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였고, 육신의 부모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죽는 효행실천의 모델이 되어 주셨다.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초가 된다고 가르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하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강조하면서 효사상이 한 개인이나 가정 안에서만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대된 개념으로 효 실천을 사회윤리와 질서의 근본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베드로전서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버이를 섬기는 일"에 가족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 못사람을 공경하라는 말은 결코 낡아준 직계가족으로의 부모에 한정시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결코 평범한 상황, 안정된 상황에서 서로 공경하

24) 예수에게 있어서 제자도는 삶에 있어서 부모공경이나 가족 사랑 등 당시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어떤 가치보다도 상위의 원리였다. 나아가 예수는 부모를 장사지내는 것보다 제자도의 실행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까지 한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모세 오경의 부모공경의 원칙에 따라 유대인들은 그 후대 전승에서 자녀가 부모를 장사지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고, 이것은 종교적 의무보다 우선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는 제자도의 우선성, 시급성, 급진성을 말한다.

25) 마가복음 7: 11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26) 신약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중시하여 고르반이란 말로 맹세한 경우, 그것이 부모 부양에 필요한 것일지라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후에 이 맹세는 악용되어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게 되는 핑계가 되었고,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건을 가장하여 자기들의 연로한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회피하게 된 것이다. 이때 예수는 장로의 유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정신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공격받고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섬기라고 말하며 사람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권면하고 있다(박성은, 2008, 81).

2) 기독교 효 사상의 성격

기독교에서는 효사상의 성격이 예수가 부모공경과 가족사랑 등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가치보다 제자도의 삶에 영역에 있어서 우선시하고 있다. 또 효가 국가와 사회를 용이하게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효, 권위주의화된 효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 기독교는 먼저 효도하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인가 에서부터 출발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효도를 명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효도의 성격을 알 수 있게 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였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위선이요. 거짓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섬김의 대상이지 구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육신적인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형인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효는 부모를 아무리 잘 섬겨도 진정한 효가 아니며,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기독교의 효사상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의 효도는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육신의 효도를 잘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영적인 근거가 없는 효도는 형식적이며. 의식적이며 인간적일 뿐이다.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눈치만 살피게 되어 진정한 효도가 되지 못한다.

둘째, 하나님을 더 높이는 효도이어야 한다. 성경은 '주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효도를 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효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므로 도리어 죄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높이고 사랑하는 자는 육신의 부모에게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 효도를 한다면 진실되고 불변적으로 인간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신분주의의 효도를 할 수 있다.

셋째, 기독교의 효도는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시에 효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동시에 더 즐겁고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분노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때 육신의 부모 위에 영의 부모, 인류의 부모가 되는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높게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

네째, 기독교의 효도는 살아계실 때에 해야 한다. 부모님에 대하여 훗날에 후회함이 없이 공경하라는 말씀이다. 우리 부모님이 죽은 후에 추도식이나 제사를 드려 효도한다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효도해야 진정한 효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효도인 것이다. 사회에서는 기독교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불효자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죽어서보다 살아서 더 잘해드리며 또한 부모공경의 연장선장에서 가족의 공동체 강화를 위해 추도예배를 드린다.

다섯째, 부모님을 희생자로 만들지 말고 평안하게 잘 모셔드리라는 것이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으시고, 자식 잘되기만을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부모님들의 인생이요. 사람이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모시고 대접하여 인생의 보람을 느끼도록 해드려야 한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평안하게 잘 모셔야 보람과 기쁨과 만족 속에 사시도록 자녀들은 잘 살고 출세하고 부모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다.

또 한상열은 기독교의 효사상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 그리고 부모의 유지를 받드는 것으로 나타나며, 둘째, 효 실천에 따른 보상과 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효를 실천한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누리고, 불효자에게는 사형에 처하거나 돌로 쳐죽임을 당하였으며, 세째, 기독교 효사상은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섬기는데까지 연장된다(한상열, 1982).

2. 기독교 효 사상과 조상제사에 대한 기독교 수용문제

1) 기독교 효 사상과 조상제사에 대한 이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의 효사상의 여러 성격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기독교는 부모공경의 효사상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기독교의 부모공경과 우리나라 전통의 '효'가 크게 서로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의 효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후회함이 없이 효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기독교가 죽은 조상에 대한 공경과 효도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교는 조상제사를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됨을 기초로 생각하고 효의 연장선에서 이해한다. 또 조상제사는 효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유교의 효사상이 선행문화로 자리잡아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독교는 이 조상제사 의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이다. 27) 공자는 "대체로 효도 하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데서 부터 시작하여 다음으로는 임금을 섬기고 끝으로 입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大雅에 이르기를 '너는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때에는 너의 조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자진하여 이 덕을 닦아야 한다'고 하였다²⁸⁾. 그래서 공자는 "살아계실 적에는 예로써 섬기고 제사를 예로써 모시라"고 했다²⁹⁾. 또한 부모에 대한 효는 그 부모 생존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死者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 하라"고 했다(주재

27) 제사문제를 둘러싼 대표적인 논쟁 사례는 1920년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당시 기독교청년회 총무였던 이상재와 양주삼 목사의 논쟁이다. 1920년 경북 영주에서 한 기독교 신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체에 朝夕上食을 하지 못하게 한다하여 그 며느리가 자살한 일로 인해 일대 논쟁이 벌어진 사건이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조상에 드리는 제례의식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일본의 신사참배와 같은 것이 우상이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상숭배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더 가깝다." 이해 반해 당시 교계의 지도자였으며 당시 외국 선교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양주삼 목사는 제사를 우상숭배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후 여러 사람들의 논박이 따랐으나 동아일보의 정간으로 그 논쟁은 계속되지 못하였지만, 작은 책자를 통해서 그 논쟁은 계속되었다. 이어 박승범 장로는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은 기독교 뿐만 아니라 유교에도 없다. 원래 유교에는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에 절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에도 없다. 다만 가족이 제사 대신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부모의 사진을 바라보고 그 분들을 사모하고 그 뜻을 되새기면 된다."고 했다. 그 얼마 후(1926) 변영태 선생은 <조상숭배에 대한 나의 태도>라는 책자를 만들어 당시 선교사들에게 돌렸다. 그 요지는 "조상숭배는 결코 우상숭배가 아니다. 절하지 말라는 성구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부모가 돌아가셨을때 그 신에 절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배행위로 규정하여 우상숭배라고 폐기해서는 안된다. 제 2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예배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신에 절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므로 성서적으로 어긋난 것은 아니다. 절이란 동양에서는 예배가 아니라 존경의 표시다. 조상에 대한 추모는 효의 표현이며 윤리 행위이다. 그러므로 조상숭배라는 말보다는 '조상기념제'란 말이 적합하다. 조상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행위도 좋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후에도 제사를 둘러싼 유학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간의 갈등은 계속되었으나 이런 논쟁의 결과로 한국의 개신교 제사문제 갈등은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다.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조상제사의 문제를 새로운 논으로 볼 수있을만큼 성숙하고 여유있는 자세로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조상제사에 대한 재평가가 목회현장에서 요청되고 이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도 올바른 신학적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28) 孝經 開宗明義章, 夫孝 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 大雅云 亡念 耋組 肆 修 德 '大雅'란 詩經의 육의 하나로 큰 정치를 말한 正樂의 노래를 말한다.

29) 論語 爲政第二, 生 事之以禮 死 葬之以禮 祭之以禮.

용, 1958: 19). 그러므로 제사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미처 다하지 못한 봉양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³⁰⁾ 맹자는 세 가지의 불효 가운데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을 그 하나로 삼고 있다(주재용, 26).

외국인 길포드(Daniel L. Gilford)는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조상제사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을 말하는데 그 하나는 조상제사와 그 자손들의 행, 불행을 관련시키지 않고 다만 제사를 행하지 않을 경우 조상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이유로 평판이 나빠진다는 것을 우려하는 유형과, 다른 하나는 조상제사를 잘 드리면 한국 신화의 최고신인 "하늘님"이 복을 주셔서, 돈, 명예, 등 좋은 것으로 보상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형벌이 있다고 믿는 유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학자 최근덕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상고시대 또는 민간신앙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숭배하거나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전통 사상인 유교에서는 귀신의 인격성이나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유교에서는 귀신을 순수하게 형이상학적으로 파악하여 생사의 영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며, 죽음의 세계를 단순히 삶의 연장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동양에 있어서의 귀신은 서양에서의 신(God)이나 유령과는 전혀 다르다"(최근덕, 1992: 41-49).

조상제사에서 이와같이 죽은 영혼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혼이 찾아와서 신위에 앉아 절을 받거나 음식을 먹는다고 하여 제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다. 제사는 사사여사생(事死如事生), 곧 돌아가신 분 섬기기를 살아있는 분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한다는 사상으로 그렇게 지낸다. 살아계실 때 섬기던 방식대로 절도 하고 음식도 드리면서 추모를 하는 것이다. 공자는 이점을 강조하여, "제사는 거기 계시듯 지낸다"(祭如在)고 하였다. 말하자면 살아계시는 부모나 조부모에게 '효도'이고, 돌아가신 조상에게는 '제사'인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과 우상숭배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한국교회에서 조상제사를 우상숭배라 하는 근거를 제 1.2계명에 두고 있으나 이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문화적 특수성을 간과하는 것이며, 성서를 증빙문서(prove-text)로 사용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서양에서도 죽은 이의 시신이나 무덤에서 머리를 숙이거나 모자를 벗는다. 이는 동양의 절하는 것과 표현양식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 이상의 그 무엇이라 말할 순 없겠다.

2) 조상제사의 기독교적 수용에 대한 입장

(1) 기독교 복음의 토착화 필요성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데 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위에 역사하는데 있다. 복음의 토착화란 초월적인 복음의 진리가 일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역사적인 현실과의 타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의 독자성과 초월성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역사와 세계를 자기의 의도대로 개선하며 새롭게 창조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착화는 주체성을 잃은 혼합이나 모방이 아니라 자기부정을 매개로 하는 자기실현이다(유동식, 1976: 122).

한국교회가 지적받아야 할 것은 교회가 서구적 전통이나 서구문화와의 유대는 갖고 있으면서 '자기'인 한국문화와의 유대는 단절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한국에서 토착화될 수 없었던 요인이며, 아직도 기독교가 한국인에게 서양의 종교라는 개념을 갖게 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복음의 토착화의 과제는 일정한 문화와 연대를 지니며 동시에 그

30) 禮記, 祭統 제 25, 祭者所以 養繼孝也.

문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재창조하는데 있다³¹⁾. 이와같이 이스라엘의 신앙도 외골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주변문화와의 만남속에서 부정적인 변화 창조적인 변화를 이룩하면서 형성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사의 본의가 결코 구복이나 벌을 면할 것을 목적이야 종교적 미신보다는 조상과 부모에 대한 효성의 몸짓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혹 이것에 어떤 미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복음은 무조건 제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내용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순서이다. 서양풍습이 전부 복음적인 것이며, 이교주의 문화라고 해서 전부 비복음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크겠는가? 기독교는 마땅히 복음의 핵심으로 다양한 문화풍습들을 복음화할 수 있는 과제를 안고 있다.

(2) 토착화 신학적 원리로서 成肉化(Incarnation)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성육하시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실천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성육하신 하나님의 뜻은 곧 교회의 존재근거가 된다. 그것이 성육화의 원리이다. 그것은 하늘이 이 땅의 것으로만 화합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성서의 적극적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것이 이 땅에 것으로 토착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나라가 자신의 종족이나 민족의 훌륭한 전통을 보존하려는 의지 등을 일컬어 토착화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토착화는 어떤 편리함을 이유로 요청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을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계속하는 교회의 본질에서 찾아야 한다. 한 마디로 이 성육의 신비는 토착화의 신학적 원리이다. 성육은 구원의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한다. 교회를 통해서 반복 가능한 역사적 사건이 실행되고 그리스도께서는 활발하게 세상 안에서 현존하신다. 다양한 민족 안에 교회의 성육화를 펼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편성의 확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토착화는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성육의 요구로부터 성취해야 하는 신학적 명령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성육화하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 안에 성육화하여야 한다. 또 토착화의 문제는 복음선교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문화적 축역에서 비롯되는 하나의 명령적 요청이다. 그리고 전례의 토착화는 선교지에서 교회의 활동을 용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유형의 문화안에서 여전히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필연적인 것이다(김종수, 1994: 24-44).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인 조상제사에 대한 재해석은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식이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받게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민족의 고유한 예식의 본래적 구조를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낼 목적으로 교회가 그 의미를 수정할 뿐이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 후자의 과정은 신앙으로서의 회개, 기독교 이전의 예식에게 "세례를 주는 것"과 같은 양식이다. 예수에 의해 재해석된 세례와 성찬례는 이러한 문화 재해석의 첫 번째 예들이다. 적절히 이루어지는 '문화 재해석'은 전체 문화를 그리스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문화를 관통하는 이상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서가 말하는 기독교의 효사상은 기

31) 민영진은 구약에서 나온 여러 이스라엘의 신앙과 문화도 원래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과 가난한 적인 것의 만남에서 그 내용이 풍부해지고 독특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야훼신앙과 바알문화와의 접촉과 충돌의 형태를 혼합형태, 반응형태 등으로 설명하면서 성서에 나타나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더라도 가난안의 농경문화에서 형성된 농업절기를 이스라엘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독특한 의미를 더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문화의 것을 받아들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고 그 새로운 형태 속에서 "야훼"라는 내용이 더욱 독특하게 살아났다고 주장한다(민영진, 155-160)

독교의 토착화에도 중요한 계기(moment)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V. 基督教 孝思想 實踐을 위한 韓國教會의 役割

부모에 대한 효도는 성경과 유교에서도 변함없는 진리에 해당한다. 비록 효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방법을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정신과 의미는 변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의 다종교·다문화 사회를 엮을 수 있는 중심사상이 효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는 더욱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우리는 유교의 제례가 기독교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효성과 우상숭배의 혼합문화권에서 우리가 대담해야 할 선교적 문제는 이것이다. 1) 기독교가 유교의 효행을 능가하는 행위를 보여주어야 한다. 2) 종교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바른 신앙대상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3) 사랑의 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혈연공동체를 형성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4) 제자양육을 통한 교회의 자립과 자력전파와 토착화의 실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공동 속에서 머무러 더욱 사랑을 실천하고 효행으로 본이 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착한 사람들과, 전통문화의 파괴자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져 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가족을 살리고 공공체를 살리는 운동을 펼쳐야 할 때가 왔다. 성경적 관점에서 가족공동체를 살리는 길은 효를 실천하는 일이다. 효도는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자 대인 계명의 첫 번째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효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목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의 효도는 윤리 도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이자 당위의 문제라는 것이다. 마침 한국정신문화를 상징하는 효사상이 많아진다고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던 차에 교회가 앞장서서 효실천을 전개한다면 교회는 또 한 번의 이땅의 선도자가 되는 셈이다. 교회의 효실천운동은 그간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고 특특히 한 몫을 할 것이고 불효의 종교로 낙인찍혔던 교회에 대한 선입견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인가. 더군다나 21세기 가장 심각한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여기에 있다면 망설일 이유도 없다. 천 이백만 기독교인들의 효실천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임과 동시에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서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언제나 사회가 필요로 할 때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왔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를 선도하는 것은 교회의 이미지 회복과 정체된 교회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들어 특히 이 땅의 문제로 대두되는 세대가 계층간, 지역간 갈등과 이념적 대립도 효 사상이라고 하는 통합의 논리로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다시 말해 효 사상이 통시·통념·통교·통공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한국사회는 효 사상을 통해 이끌어 가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형제화된 유교적 효사상을 넘어 성경적 효를 밑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이 주장은 기존의 토착화 신학 속에서의 효사상에 대한 접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한국사회의 바른 정신문화 창달이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가족-사회-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존 스토틀(2008),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정옥배 역, IVP
- 신원하(2001), 『교회가 꼭 대답해야 할 윤리문제들』, 예영 커뮤니케이션.
- 맥스 L 스택하우스(2007),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북코리아.
- 피터 버거(1993), 『종교와 사회』, 종로서적.
- 이상성(2007), 『추락하는 한국교회』, 인물과 사상사.
- 정진홍(1992), 『종교문화의 이해』, 서당.
- 기독교 사상 편집부편(1992), 『한국의 문화와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 강영안(2009), 『십계명 강의』, IVP.
- 김익수(2009), 『한국인의 효사상』, 수덕문화사.
- 김익수(200), 『동방의 효문화와 인류평화』, 한국사상문화연구원.
- 지교현(1997), 『한국의 효사상』, 민속원.
- 김주곤(2000), 『한국시가와 충효사상』, 국학자료원
- 서경요(2010), 『한국인의 효경문화』, 도서출판 문사철
- 서일성(2010), 『효도개론』, 글로벌.
- 김종두(2000), 『자녀들아, 부모를 사랑하자』, 학문사.
- 최재석(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현음사.
- 현용수(2010), 『자녀의 효도교육 이렇게 시켜라』 1. 2. 3, 웨마
- 홍일식(1996),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정신세계사.
- 성규탁(2010), 『한국인의 효 I, 이어지는 전통과 변하는 실천』, 이담북스
- 성규탁(2010), 『한국인의 효 II, 시대의 변화와 실천의 유형』, 이담북스
- 성규탁(2010), 『한국인의 효 III, 새 시대의 어른 존경』, 이담북스
- 박봉배(1988), 『기독교윤리와 한국문화』, 성광문화사.
- 손봉호(1985), 『한국교회와 제사문제』
- 최근덕(1992), "한국의 효사상", 『기독교사상』
- 김동수(2005), "기독교 효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21세기를 위한 효사상과 가족문화』, 국제효학술대회,
- 『논어』
- 『효경』
- 『신구약성경』